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김흥기

《 목 차 》

들어가는 말

- I. 인문주의(Humanism)와 종교개혁
 - II. 민족주의(Nationalism)와 종교개혁
 - III. 인쇄술의 발전과 종교개혁
 - IV. 중세후기의 종교적 상황과 종교개혁
-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불란서 역사가 타이네(Hippolytes Taine, 1828-1893)가 지적하였듯이 역사는 종족(race), 시간(moment), 환경(milieu)의 세가지 요소로 만들어진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역사적 외적 힘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따라서 인간실존의 외적 요소인 시간과 환경에 의해 인간기능이 조건지어진다. 또한 이 세 요소는 상호의존의 법칙(the law of mutual dependence)을 가진다. 하나의 변화는 다른 하나의 변화에 상호의존 관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들면, 후스(John

Huss)나 위크리프(John Wyclif) 등이 루터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처형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전개 하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의 시대적, 환경적 상황에서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지만, 그가 루터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결단력없는 성격 때문에 루터만큼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루터이기에 16세기 독일의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지만, 그가 16세기라는 시간(milieu)과 독일(milieu)이라는 환경속에서 활동하였으니까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확실하다.

또한 토인비(Arnold Toynbee)의 역사해석에 의하면 지배적 소수(dominant minority)의 폭력에 항거하는 외재적 민중(external proletariat)의 폭력에 의해 서로 파멸 되어가는 역사의 해체과정에서, 새역사는 내재적 민중(inner proletariat)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에 의하여 창조 되어진다.

아무리 16세기의 교황청이 지배적 소수로 중세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루터가 그 시대의 창조적 소수 중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재적 민중의 추앙을 받지 아니하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6세기 유럽과 독일의 역사상황이 내재적 민중을 형성시켰으며, 그 내적 민중의 요구와 희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 소수인 종교개혁가들 중의 한사람으로 루터가 등장하였으며, 특히 그 창조적 소수 그룹의 개척자로서 루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칼라일(Thomas Carlyle)의 영웅사관처럼 영웅들에 의하여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다. 그 민중 중에서도 폭력적 외재적 민중이 아니라, 평화적 내재적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루터는 다만 그 내재적 민중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예언하였던 창조적 소수 중의 한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가능케 하였던 내재적 민중의 소리를 대

변하였던 인문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루터와 칼빈 등의 예언의 소리를 민중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환경 중의 한 요소인 인쇄술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I. 인문주의(Humanism)와 종교개혁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사상적 기초이다. 르네상스는 문자적으로는 '거듭남'(rebirth), '부흥,' '부활,' '재발견'이란 뜻이다. 고전적 가르침과 가치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데 관심갖는 운동이다. 중세에 잊혀졌던 희브리문화, 희랍문화, 로마문화를 다시 찾음으로 인간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르네상스를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고대 고전적 문학과 예술의 발견에 의한 지식과 예술의 부흥이 일어난 지성적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술 작품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대의 천재적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전통적 기독교신학과 신플라토 사상을 결합시켜 조각한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의 '피에타'(Pieta)와 '다윗,' 아리스토텔레스학과와 플라토학과의 사상을 함께 종합하여 조화, 아름다움, 평온함을 묘사한 라파엘(Raphael, 1483-1520)의 '아테네의 학파'(The School of Athens) 등을 들 수 있다.

그 당시의 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는 오랜 중세문화의 침체와 몰락 이후에 고전적 가르침과 지혜의 부활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르네상스의 사상적 기초는 인문주의에 있었다. 인문주의는 중세가 무시했던 인간의 존엄성, 잃어버린 인간의 정신과 지혜의 거듭남, 곧 본래적 인간성(humanitas)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다.¹ 이 거듭남과 회복을 위해 '고전으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classical antiquity)

1.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9, Micropaedia, 15th edition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0), 1020.

는 사상이다. 남부유럽의 고전라틴어 문학자료들이 베네딕트 수도원인 몬테카시노(Monte Casino)에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 북부유럽에는 역시 베네딕트 수도원인 풀다(Fulda)에 많이 보관되어 있었다. 고전 희브리사상(Hebraism)을 연구하면서 유일신 사상과 십계명 정신을 배우게 되었다. 고전 희랍사상(Hellenism)을 연구하면서 희랍예술과 철학과 생활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머(Homer), 리비(Livy), 오비드(Ovid), 시세로(Cicero), 버질(Virgil), 세네카(Seneca), 호레이스(Horace), 테렌스(Terence)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성서가 쓰여진 대중적 희랍어(Koine Greek)를 넘어서 학문적 희랍어(Attic Greek)을 연구하여 희랍교부들의 신학적 작품들을 읽게 되었고, 중세 스콜라주의(Scholasticism)의 철학적 기초였던 아리스토텔(Aristotle) 철학에서 플라토(Plato) 철학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인문주의운동은 중세대학들을 플라톤주의(Platonism)에 심취하게 하였다. 파두아대학교(University of Padua)만이 유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계속 고수하였고, 대부분의 중세대학들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플라톤주의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플라톤주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인문주의운동에 파두아대학교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르네상스가 이태리에서 먼저 일어나게된 원인은 남유럽, 특히 남부 이태리에는 희랍문학작품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 당시의 많은 대중들의 언어가 희랍어였기에 로마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태리에는 그러한 희랍 고전연구의 맛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살레노 대학교(University of Salerno)의 선생들과 학생들은 그러한 즐거움을 갖고 있었다.²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이태리의 마을마다 라틴어를 연구하는 학교가 완벽한 조직을 갖고 현대적 의미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발전하였다.³ 이태리의 인문주의자

2. Thomas M.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4) 46.

3. Jacob Burckhardt,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New

아이네아스 실비우스(Aeneas Sylvius)는 합스버그(Habsburg)의 젊은 두 제후에게 인문주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⁴

이태리의 인문주의 문학가들에 의해 고전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단테(Dante, Dante Alighieri, 1265-1321)는 고전문학을 당대의 문화속으로 끌어들이는 최초의 인물이었다.⁵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Divine Comedy)에서 기독교세계와 고대세계를 연결지음으로써, 똑같은 사실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과 고대 이교도적 설명을 함께 다루고 있다.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74)는 모든 고대 라틴 시의 형태를 모방한 이태리 최대의 시인이었다. 그의 라틴어 시들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75)는 그의 작품 『데카메론』(Decameron)으로 전 유럽에 유명하여졌는데, 그는 라틴 신화, 지리학, 자서전을 편집하고 그것들을 기초로 데카메론을 저술하였다.⁶

대부분의 유명한 라틴 시인들, 역사가들, 수사학자들과 문필가들, 그리고 아리스토틔(Aristotle)과 플루타크(Plutarch) 및 다른 희랍사상가들과 작가들은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 시대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호머(Homer)의 일리아드(Iliad)와 오디세이(Odyssey)는 페트라르카의 제안과 보카치오의 도움으로 희랍인 레온지오 필라토(Leonzio Pilato)에 의해 희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15세기로 접어들면서 희랍어로부터 번역된 문서들을 관리하기 위한 도서관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유명한 희랍 추기경 베사리온(Bessarion)은 희랍어로 씌여진 크리스찬 저자들과 이교도 저자들의 사본 482개와 라틴어로 씌여진 사본 264개를 베네치안 공화국(The Venetian Repub-

York: Harper and Row, 1958) 220-21.

4. Burckhardt, 223.

5. Burckhardt, 212.

6. Burckhardt, 214.

lic)에 기증하였다. 이 사본들을 보관하기 위한 빌딩을 성 마가(St. Mark) 도서관에 짓고 이 귀중한 보화들을 관리하게 되었다.⁷ 또한, 베니스(Venice)의 알도 마누치(Aldo Manucci) 출판사가 희랍문화 연구를 위해 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알도 자신이 세상에서 보기드문 자료들, 아주 중요한 저자들과 방대한 양을 쓴 저자들의 자료들을 편집하고 원본 그대로 출판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였다.⁸

고전의 부흥은 서방문화권 뿐만 아니라 동방문화권의 고전들도 발굴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랍어(Arabic) 고전—특히 의학—들도 연구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Hebrew) 고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단테 자신이 히브리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히브리어 본문 발굴은 주로 교회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교황 식스투스 4세(Sixtus IV)는 희랍어 문서들과 라틴어 문서들 뿐 아니라 히브리어 문서들을 위해 바티칸 도서관에 따로 건물을 짓게 하였다. 히브리 문서 사본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바티칸에 있는 울비노(Urbino) 도서관 같은 도서관들이 열심히 히브리어 문서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475년부터는 이태리에서 희브리어 책들을 인쇄하기 시작하였다.⁹

1488년에는 볼로냐(Bologna)대학교에서 히브리어 교수 자리를 만들었고, 1514년에는 로마대학교에서 히브리어 교수 자리를 만들게 되면서 히브리어 연구가 희랍어 연구보다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끄는 것이 되었다. 당대의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 미란다라(Pico della Mirandola)는 히브리어 문법이나 성서에 만족하지 않고, 유태인의 카바라(Kabbalah)와 탈무드에까지 파고들어 갔다. 그는 자연히 유태인 선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민은 유태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수와 저명한

7. Burckhardt, 199.

8. Burckhardt, 206.

9. Burckhardt, 208.

저자들이 되었다. 이태리에 이민온 유대인들이 모든 종족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었으며, 탈무드와 탈굼(Thargum)과 미드라섬(Midrashim)까지 가르쳐 주게 되었다.¹⁰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도덕적 생활에 집중적으로 관심이졌다. 철학과 정치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인문주의자 크리스텔러(Kristeller), 폴 오스카(Paul Oskar) 등의 도덕주의적 문화운동과 교육운동은 북 아메리카와 유럽에까지도 널리 보급된 인문주의 운동이 되었다. 그들의 주요관심은 정치와 철학보다는 도덕이었다.¹¹ 도덕적 덕을 실천하는 행동이야말로 인문주의적 배움의 목적이다. 정의롭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은 인문주의적 교육의 목적이다. 철학적 이해와 힘있는 수사학의 종합은 덕스러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주의자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는 그의 저서 “가정에 관하여”(Della Familia: On the Family)에서 “행복은 선행(good works)없이, 정의롭고 의로운 행동없이 얻어질 수 없다. …가장 좋은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였다.¹² 도덕적 각성이 모든 의로운 행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성으로 이어졌다. 인간은 마땅히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그리고 명예를 위해 전투의 전선에 서야 한다.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주의는 현실주의(realism)로 표출되었다. 현실에서의 행동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인간 인식의 근거가 된다. 초기 인문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정을 거부하고, 인식된 체험의 객관적 분석을 중요시 여겼다. 따라서, 현대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의 발생은 인문주의에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과학은 학문적 혼란

10. Burckhardt, 208.

11. Alistair Mcgrath,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alckwell, 1989) 30-32.

12. *The New Encyclopaedia Britanica*, vol.20, 667.

(academic discipline)이 아니고 사회적 질문의 실천적 도구(practical instrument)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경험은 전통적인 지혜에 앞선다. 지혜의 기본적인 형태는 시장과 극장과 가정에서만 발견되어진다. 따라서, 인간들의 산 경험의 기록인 역사는 새로운 정치학의 기본이 된다.

르네상스 현실주의는 인간의 불확실성과 어리석음과 비도덕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페트랄카가 자기 자신의 복잡한 동기들과 의심들에 정직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이 보카치오에게 영향을 주어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에서 인간의 악과 무질서에 대하여 사전적인 연구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문주의의 도덕적 비판은 절대적 청결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지상의 활동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귀함을 강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정신과 육체 사이의 성숙하고 건전한 조화를 강조한다. 인문주의 현실주의는 인간성의 재창조를 목적하지 않고, 사회질서의 개혁을 목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문주의적 현실주의는 로마천주교회를 신학적 구조가 아닌 정치적 제도로 문제삼았다.¹³

또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현실주의는 개인(individual)의 주관적 의식(subjective consciousness)을 개발시켰다. 인류가 처음으로 자신을 주관적 객체(subjective individual)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중세의 공동체적 의식속에 잠자던 개인의 주체의식이 부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발견은 개인의 경험이 슬프던 행복하던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한 것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인문주의자 미란다라(Giovanni Pico della Mirandola)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특징지어진 것도 제한되어진 것도 아니고, 대신에 그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도록 자유롭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은 결코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인간과 개인의 이해는 다양성을 지닌

13.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0, 666.

1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0, 667.

인간(l'uomo universale: all-sided human being, many sided human being)으로 발전시켰다. 단테는 시인으로, 혹은 철학자로, 혹은 신학자로 불리워졌다. 플리니(Pliny)는 자연의 역사, 지리학 등 다양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다. 플로렌스의 상인이나 정치가나 모두 고전어를 배우는 풍습이 생겼으며, 아들들 뿐 아니라 심지어 딸들에게도 수준 높게 가르치는 아름다운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¹⁵

이 주체적 개인주의는 루터의 신앙의인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중세는 수도원적 공동체 의식과 교황의 전체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의하여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지배하는 현대사회가 열리기 시작하였다.¹⁶

이와같이 휴머니즘은 역사에로 돌아가서 현실을 분석 비판하고 새로운 내일을 재건하고 창조하는 역사의식적 운동이었고, 역사연구를 통하여 고전주의와 현실주의와 도덕주의와 개인주의를 발전시켜나간 인류 역사 최대의 역사창조 정신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16세기의 휴머니즘은 20세기의 휴머니즘과 서로 다르다. 오늘날의 휴머니즘은 무신론적, 반종교적, 반신학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6세기의 휴머니즘은 반종교적 철학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중도적인 사상이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스콜라주의 신학이 유럽사회에 더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후에, 지성적 공백을 채워 주게 되었다.

그 당시의 휴머니즘은 앞서도 언급한대로 '근원적 자료로 돌아가자'(ad fontes: back to the original sources)는 슬로건으로 요약될 수 있다. 희랍어 고전과 라틴어 고전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기독교에 응용되어, 성서와 초대 교부시대 저술들을 관심 갖기에 이르게 되었다. 고대의 작품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험들을 다시 찾게 되고, 16세기의 역사적 상황과 교회경험 속에 다시 이식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역사의 재포착(recapitulation) 운동이

15. Burckhardt, 148.

16. Alister McGrath, 28.

일어나게 된 셈이다. 르네상스는 역사연구를 통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고, 종교개혁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구약 희브리어 본문 연구, 신약 희랍어 본문 연구, 초대희랍교부와 라틴교부신학 연구, 특히 어거스틴 연구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 재발견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후대에 일어난 불란서혁명도 로마사를 연구하는 역사연구에 의하여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초대 교회역사 연구를 통한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당대 최대의 인문주의자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of Rotterdam, 1469-1536)였다.¹⁷ 그는 16세기 유럽의 최대의 학자로 독일과 스위스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루터와 칼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그들은 에라스무스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쾰빙글리(Zwingli)와 부쨌(Bucer)에게는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예정론도 비판하고 교황청의 권위도 비판하였기에 개신교와 카톨릭 양자 모두에게 공격받았다. 그는 정통(orthodoxy)보다는 자유(liberty)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는 자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한 셈이다.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의 새로운 경건운동 'Devotio Moderna'(현대적 경건)에 영향아래 교육받아서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가 되었고, 1492년 사제로 안수받기에 이르렀다. 파리(Paris)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중세스콜라주의 신학을 싫어하게 되었고 인문주의자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성적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영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옥스포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하였다(1499-1500, 1505-06, 1517). 또한, 그 유명한 『바보신 예찬』(Moriae Encomium)을 토마스 모어(Thomas More)집에서 15

17. 에라스무스는 결혼이 금지된 카톨릭 신부 고저 게랄드(Roger Gerard)와 의사의 딸 마가렛(Margaret)과의 불법동거생활의 결과로 1469년 10월 27일 네델란드의 로테르담(Rotterdam)에서 태어났다.

09년 저술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토마스 모어, 존 피셔(John Fisher), 존 콜레(John Colet) 등을 만나면서 기독교적 경건과 인문주의의 조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성서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희랍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이태리를 방문하여 많은 인문주의 지식을 넓히게 되었다.

그의 책 『크리스찬 군병의 안내서』(Enchiridion Militis Christiani)가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이 책이 1503년에 출판되었으나, 1515년 제 3판이 출판된 후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성서와 교부들의 작품으로 돌아감으로써 개혁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 특별히, 몇가지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평신도운동이다. 에라스무스는 기독교의 미래적 생명력은 평신도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성직자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평신도들을 성직자들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가르치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한다. 평신도들이 크리스찬 소명의식을 깨닫는 것은 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해석한다. 성직자적, 교회론적 권위를 감소시켰다. 성서는 성직자만의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크리스찬 신앙의 신선하고 생기있는 생수를 마시도록 성서의 '본래적 자료'(ad fontes)로 돌아가야함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희랍어 원본을 편집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평신도의 기능과 역할의 발견은 루터의 만인사제론(all believers' priesthood)을 전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둘째, 내적 종교(inner religion)를 강조하였다. 종교적 제의나 성직자나 제도보다도 내면적 종교경험을 중요시 하였다. 죄의 고백은 어떤 다른 인간 성직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에라스무스는 강조하였다. 종교는 개인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 곧 내적 상태임을 에라스무스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해석은 루터의 95개조의 항의문의 핵심 주장인 회개의 본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루터는 참 회개는 고해성사나 면죄부 등에 의한 외형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통회자복하

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성서의 본래적 언어인 희랍어 성서연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성서의 라틴어 번역판인 『벌게이트』(Vulgate; Vulgata)이다. 희랍어 원본으로 돌아가는 두가지 도구는 희랍어원본의 발굴과 희랍어 본문을 취급하는 언어학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두가지 어려움은 4년간의 벨기에(Belgium)의 루베인(Louvain)을 방문하던 기간중에 15세기 인문주의자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의 신약 희랍어 원본 노트 "Adnotationes"를 1504년 루베인(Louvain)의 수도원(the Premonstratensian)에서 우연한 기회에 발견함으로써 해결되었다.¹⁸ 에라스무스는 그것을 1505년에 출판하였다.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다시 편집되어 희랍어 신약성서 "*Novum Instrumentum*"이 1516년 2월 루터의 종교개혁 1년 8개월 전에 스위스(Switzerland) 바젤(Basel)에서 출판되었다. 그는 그의 서문과 새로운 라틴어 번역과 주(notes)를 덧붙였다.¹⁹ 루터는 이 희랍어 본문을 많이 참고하였고, 루터가 바르트버그(Wartburg)성에서 노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신약성서를 번역할 때의 희랍어 원본이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것이었다.

에라스무스는 희랍어 원본을 번역해본 결과, 라틴어 "벌게이트"는 여러면에서 잘못 번역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새로운 번역은 중세신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²⁰ 중세 천주교신학이 결혼을 엡 5:31-2에 근거하여 7성례전(seven sacraments)에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라틴어 "벌게이트"에는 결혼을 성례전, 곧 'sacramentum'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18. Ed. G.W.H.Lampe,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494-95.

19.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2, 498.

20. Alister Macgrath, 39-40.

발라와 더불어 그것이 희랍어원본에는 결혼을 신비, 곧 'mysterion'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중세가 주장한 결혼 성례전은 비성서적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결혼을 성례전으로 주장할 성서적 근거가 없음을 증명하게 된 셈이다.

두번째로 에라스무스가 지적한 것은 고해성사이다. 라틴어 "벌게이트"에는 예수의 선교의 첫 선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고해성사하라" (poena: do penance, 마 4:17)고 되어 있으나, 희랍어 원본에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회개하라' 곧 'metanoete'로 되어있음을 발라와 함께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해성사도 성례전임을 뒷바침해주는 성서적 근거가 없음을 밝혀주게 되었다. 중세의 7성례전론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었다.

세번째로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것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관한 문제였다. 눅 1: 28이 "벌게이트"에는 '은혜의 저수지' 곧 'gratia plena'로 되어 있으나, 희랍어 원본에는 단순히 '은혜를 받은 자' 곧 'kecharitomenē'로 되어 있음을 밝히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또한 중세의 마리아론(Mariology)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²¹

이런 중세신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성서해석은 에라스무스의 교부들의 성서 해석과 비판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에라스무스는 초대교부들, 특히 알렉산더학파의 해석, 오리겐의 본문비평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²²

그는 초대 교부들의 저서들을 편집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에 바젤에서²³ 요한 프로벤(Johann Froben)의 인쇄소에서 편집

21. Mcgrath, 40.

22.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2, 492-93.

23. 바젤에서 1522년부터 1529년까지 지내는 동안 줄곧 종교개혁가들과 논쟁하였는데—1524년에 쓴 "자유 의지론"(De Libero Arbitrio)이 루터의 "노예 의지론"(De Servo Arbitrio)에 도전을 받고 긴 응답의 글 "Hyperaspites"(1526-27)을 쓰면서 논쟁함—1529년 프로테스탄트

책임자로 있었기에, 이레니우스(Irenaeus), 바실(Basil of Caesarea), 키프리안(Cyprian), 암브로스(Ambrose), 오리겐(Origen), 어거스틴(Augustine), 제롬(Jerome) 등의 저서들을 편집하여 출판할 수 있었다. 에라스무스에 의한 어거스틴의 저서 출판이 1528-9년에 이루어졌다.²⁴ 이보다 훨씬더 일찍 출판된 어거스틴의 저서들이 칼스타트(Kalstadt)에 의해 루터에게 소개됨으로써 루터는 어거스틴의 저서들, 특히 “영과 문자”(De Spiritu et Littera)를 읽으면서 새로운 신학적 사상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루터가 어거스틴을 좋아한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어거스틴 보다 오리겐과 제롬을 더욱 좋아하였다. 에라스무스가 제롬의 저서들의 편집 출판을 어거스틴의 것(1528-9)보다도 훨씬 일찍 1516년 신약성서 출판한지 불과 두달만에 완성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롬의 라틴어 성서번역 “별게이트”(Vulgate)의 잘못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학자적 자세를 찾아 볼 수 있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비텐베르그(Wittenberg) 종교개혁보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스위스 종교개혁 중에서 칼빈보다 쾰빙글리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쾰빙글리는 비엔나와 바젤의 인문주의 대학교에서 일찌기 공부하였다. 쾰빙글리는 에라스무스를 1516년 바젤에서 만났다. 당시 에라스무스는 바젤에서 프로벤 출판사(Froben's Press)를 통하여 그의 신약 희랍어 성서를 인쇄하고 있었다. 쾰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아이디어와 방법론에 의하여 깊이 영향받았다.

에라스무스가 쾰빙글리에게 영향을 준 것을 여섯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종교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다. 교회제도가 만든 외형적인

지역인 바젤에서 카톨릭 예배를 금지함으로 프라이버그(Freiberg, Germany)에서 6년간(1529-1535) 지내다가 다시 1535년 전도서 설교를 출판한 후 1536년 7월 12일 “사랑하는 하나님”(Lieve Gott)이라고 네델란드어로 말하고 별세하였다.

24. *The Oxford History of the Bible*, vol.2, 499.

문제들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띠지 않는다. 쾰링은 음악을 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배에 악기 사용까지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악기연주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의 중요한 강조점을 도덕적, 윤리적 거듭남과 개혁에 두는 것이다. 개인 뿐 아니라 사회까지 거듭나게 하고 개혁하는 것을 강조한다. 쾰링은 사회참여에 앞장섰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다섯 삼림지역 카톨릭 도시들이 일으킨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하였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의 기본적 상관성은 속죄주라기보다 도덕적 모범(moral example)이다. 에라스무스와 쾰링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imitatio Christi)을 발전시켰다.

넷째, 에라스무스와 쾰링은 어거스틴보다 제롬과 오리겐을 더 좋아하였다. 그러나 쾰링은 1520년 이후 어거스틴의 섭리사상과 은총사상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에라스무스와 쾰링은 교회의 교리보다는 교회의 삶과 실천과 도덕을 기본적으로 관심가졌다.

여섯째, 에라스무스와 쾰링은 모두 교육적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나 쾰링은 점차 인간교육 과정에서부터 인간의 연약함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포착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간다.²⁵

비텐베르그 종교개혁은 인문주의의 영향을 스위스 종교개혁보다는 덜 받았지만, 인문주의가 여러 면에서 비텐베르그 종교개혁의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쾰링의 스위스 종교개혁은 도덕적 생활에 강조점을 두는 한편, 루터의 비텐베르그 종교개혁은 도덕보다는 신학적 관심, 특별히 의인화의 교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루터는 의인화의 교리에 초점을 마춘 어거스틴의 저술들을 주의깊게 읽음으로써, 그가 친숙하였던 스콜라주의 신학이 잘못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루터의

25. Alister Mcgrath, 43.

과제는 스콜라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스콜라주의와 싸우기 위하여 루터는 성서와 교부들, 특히 어거스틴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루터는 그의 자서전적 고백을 하는 그의 라틴어 저술들의 편집서문에서 그는 인문주의자들이 편집한 어거스틴의 『영과 문자』(De Spiritu et Littera)에서 종교개혁 신학을 발견하였음을 고백한다. 어거스틴으로부터 의인화(justification)는 능동적으로 쟁취함(in nobis: impartation)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전가됨(extra nos: imputation)을 강조한다. 다시말해서, 낯선 손님같이 옷입히시는 의로움(aliena iustitia Dei)임을 깨달았다고 표현한다. 인문주의적 학문연구방법론에 의해 어거스틴의 저술들을 재발견하였고, 어거스틴의 신학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역사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희랍어 신약성서 Novum Instrumentum을 사용하였고, 그 희랍어성서에서 롬 1:17의 참 뜻, 곧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의를 발견하게 된다. 본성적 실제적 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전가되는 의임을 깨닫게 된다. 루터는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이 그의 교회개혁 프로그램에 도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간주하였다. 그는 단순히 인문주의의 업적들을 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의 슬로건 '성서와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ible and Augustine)는 인문주의자처럼 보인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가지 인문주의의 영향없이 시작할 수 없었다: 희랍어 원어로 된 성서예로의 접근, 성서원어인 히브리어와 희랍어에 대한 지식, 성 어거스틴의 작품예로의 접근 등이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사이의 긴장관계는 다음의 여섯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스콜라주의 신학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 인문주의자들은 스콜라주의의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unintelligibility)과 우아하지 못하다는 것(inelegance) 때문에 스콜라주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스콜라주의 신학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

다는 확신 때문에 거부하였다.

둘째, 성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서의 권위는 고전성과 단순성과 설득력에 있었다. 그러나 스위스 종교개혁가—쓰빙글리—는 기본적으로 성서를 도덕적 가르침의 자료로 보았다. 그런가하면, 비텐베르그 종교개혁가들은 성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운 약속의 기록으로 보았다.

셋째, 교부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교부들 중 오리겐과 제롬을 좋아했는데, 그들의 작품들의 고전성, 설득력, 우아함 때문이었다. 에라스무스는 최고의 신학자(summus theologus)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제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적 태도를 쓰빙글리는 견지하였다. 물론 1520년 이후에는 점차 어거스틴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비텐베르그 종교개혁가들—루터와 칼스타트(Karstadt)—은 분명한 신학적 기준을 갖고 어거스틴을 교부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부로 간주하였다. 그들의 교부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들이 신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이런 기준에 근거하여 그들은 오리겐이나 제롬보다 어거스틴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넷째, 교육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 인문주의자들은 교육의 기술에 대해 관심가졌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종교적 사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관심가졌다.

다섯째, 수사학(Rhetorics)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 인문주의는 수사학적 저술이나 연설의 설득력(eloquence)에 관심가졌으나,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와 칼빈의 설교들 속에 쓰여진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사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사학에 관심가졌다.

여섯째, 인간의 의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다르다. 루터는 그의 '하이델베르그논쟁'(Heidelberg Disputation)에서 반인문주의적(antihumanistic), 반스콜라주의적(antischolastic)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논쟁은 1524년과 1525년에 발생하였다. 1524년 에라스무스는 그의 저서 *De Libero Arbitrio* (『자유 의지론』)에서 인

간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는 기본적으로 옛 반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를 고수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없이 인간의 의지는 무효함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는 최대의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는 최소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는 소크라테스(Socrates), 시세로(Cicero)와 제롬(Jerome)의 사상을 존경한다. 그러나 루터는 바울과 어거스틴의 겸손한 제자다. 하지만, 루터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본질적으로는 따르면서도, 그의 인간의지에 대한 이해는 어거스틴의 ‘간혀진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 captivatum: captive free will)와 다르다. 곧, 타락한 상태에서는 자유의지가 간혀져 있어서 죄짓는 자유(posse peccare) 밖에는 없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어 죄짓는 가능성(posse peccare) 뿐만 아니라 죄안짓는 가능성(posse non peccare)도 있음을 어거스틴은 강조한다. 그러나 루터는 타락한 상태에도 노예의지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노예의지임을 강조한다.

1525년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1524년 라틴어 저술 *De Libero Arbitrio*에 응답하기 위해 *De Servo Arbitrio*(『노예의지론』)를 라틴어로 저술하였다. 과거의 에라스무스의 동역자였으나 루터의 예정론에 동조하게 된 쾰빙글리도 『참종교와 거짓종교에 대한 해설』(*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을 써서 에라스무스가 인간본성과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함을 공격하였다. 루터의 노예의지론은 마니교(Manichaeism)의 운명론(fatalism)이나 결정론(determinism)과 유사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지와 예정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역사섭리 앞에 인간의 자유나 책임성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개인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를 마치 말이나 당나귀 같은 짐승으로 비유한다.

말이나 당나귀가 기사(rider)의 인도에 따라 끌려가듯이 악령이 타면 지옥으로 끌려가고, 성령이 타면 천국으로 끌려간다. 타락한 상태에

서는 악령이 지배하고 은혜의 상태에서는 성령이 지배한다. 루터는 숨어계신 하나님(Deus Absconditus: hidden God)과 계시하시는 하나님(Deus Revelatus: revealed God)을 구별하여, 인간의 지옥 심판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속에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숨어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는 이해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라는 논쟁으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었다.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과 독일의 혁명적인 사상인 인문주의와의 깊은 관련성 속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아니 인문주의적 고전연구의 방법론이 아니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대로 인문주의 사상을 깊이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였거나 종교개혁가들은 인문주의를 무시하고는 자신의 종교개혁신학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인문주의라는 환경과 토양 위에서 자라난 나무와 같다.

II. 민족주의와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인문주의 뿐 아니라 민족주의(nationalism)와 깊은 관련 속에서 발전하였다. 민족주의는 교황의 세속적 권한을 약화시키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세속민족국가가 교황의 세력에서 벗어나 서서히 힘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단테는 그의 글 *De Monarchia* (1310-11)에서 교황의 세력에서 왕이 독립하는 왕정국가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파리대학교 총장 마르시리우스(Marsilius)는 1324년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루터의 정교분리 두 왕국설에 영향을 미쳤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1305-1417) 기간중,²⁶ 세속 권력을 권 왕들과

26. 1305년 불란서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교황이 된 불란서 대주교

제후들은 로마교황 울반 4세(Urban IV)의 편에 설 것인가, 아비뇽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t VII)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였다. 대체로 이태리, 스칸디나비아, 헝가리, 영국의 지도자들은 로마교황을 지지하고, 불란서, 스페인, 스코트랜드의 지도자들은 아비뇽교황을 지지하였다.²⁷ 각 국가의 성직자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을 따르게 되었다. 콘스탄스회의 때 대표들은 다섯 국가들의 그룹으로—불란서, 독일, 스페인, 이태리, 영국—나뉘어 졌다. 이것은 민족적 자존심과 경쟁심을 일으켰다. 콘스탄스회의 이후 콘스탄스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교황으로 선출된 마르틴 5세(Martin V)는 각 국가 최고의 통치자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르틴 5세의 후계 교황들이 종교개혁 때까지 이런 개별적 정치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안되었다.

이러한 각 국가들의 민족주의 의식이 자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민족교회들(national churches)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각 국가들의 추기경 옹호자들의 역할에서 더욱 잘 나타나게 되었다. 이

Bordeaux(Clement IV)가 불란서를 떠나기 싫어 불란서 아비뇽(Avignon)에 교황청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는데, 아비뇽 기간동안 불란서 추기경이 전체 추기경의 82%나 차지하고, 이태리 추기경이 12%, 그 외의 다른 나라 추기경이 5%를 차지하였다. 1381년부터는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 교황이 생기는 교회 분열의 비극을 격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피사회의(Council of Pisa, 1409)가 새교황 Alexander V를 선출하였는데 로마와 아비뇽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세 명의 교황들이 상존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소집된 콘스탄스회의(Council of Constance, 1414-18)는 새교황 Martin V를 1417년 선출함으로써 계속 하나의 교황이 로마에서 다스리게 되었다. 이 때부터 교회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주장(Conciliar Movement)이 일어나게 되었다.

27. Tim Dowley, *Eerdmans' Handbook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329.

러한 민족교회들은 세속 통치자들과 교황청 사이에서 종교적 문제와 재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관계를 갖게 되었다. 평신도 세속 통치자들은 평신도 이상의 역할, 어떤 의미에서는 성직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평신도들이 국가의 이익과 권리를 교황청의 이익과 권리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교황은 왕이나 제후들보다 평신도들을 더욱 두려워 하였고, 왕과 제후들은 점차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신비적 몸'(mystical body)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이제는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불란서왕들은 한때 어떤 종류의 성직자들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1516년 불란서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권리를 불란서왕이 갖기 시작하는 'The Concordat of Bologna'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1077년 독일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교황 그레고리 7세(Hildebrand)가 독일 황제 헨리 4세를 파문하자 견고한 카놋사(Canossa)성으로 교황을 찾아가 눈내리는 성문밖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회개한 '카놋사성의 굴욕사건' 이후 세속왕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었는데 'The Concordat of Bologna'로 세속왕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루터의 독일 종교개혁은 독일 민족주의의 지지를 받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었다. 루터는 독일 귀족과 제후와 동맹하여, 선제후 프레데릭(Frederick the Wise: Frederick IV)의 정치적 도움을 얻었다. 당시의 독일왕은 신성로마제국(The Holy Roman Empire)의 황제로서 7명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3명의 교회지도자들—Mainz의 대주교, Trier의 대주교, Cologne의 대주교—과 4명의 선제후들—Saxony의 선제후(Frederick the Wise), Brandenburg의 선제후(Margrave), Rhine의 선제후(Count Palatine)—이 선거인단이였다. 이러한 국회(Diet)의 구성이 황제와 제후들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고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보름스 국회(Worms Diet)에서 종교재판을 받은 루터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

은 막강한 정치적 힘을 지닌 선제후 삭소니의 프레데릭 4세—혹은 프레데릭 현자(Frederick the Wise)—의 도움으로 바르트버그(Wartburg)성으로 피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의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은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저서였다. 그는 독일이 교황청에 상납하는 엄청난 세금, 독일의 대주교와 추기경의 숫자를 늘임으로서 교황청이 독일의 경제를 수탈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 서쪽의 가장 큰 세력으로 주변 국가와의 좋은 산업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남부독일은 산악지대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철광물을 산출하는 철광업지대였고, 북부독일은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다. 특히, 루터의 종교개혁 중심지였던 삭소니는 탄광산업이 발전하여 동, 은, 주석 등의 채광이 활발하였다. 삭소니의 문화는 탄광산업의 힘에 의하여 향상되었고, 탄광산업의 이익을 통해 삭소니 통치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지방정부, 도시국가(city state), 혹은 민족주의 개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인 자본과 노동(자본가와 노동자)의 개념이 이 시대에 형성되었다. 소상공인이 점차 무역을 독점화하여 부를 축적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은행가(banker) 역할을 하게 된다. 이태리의 상인들은 십자군원정을 통해 동방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다. 상인들은 상품들을 동방에서 아주 싸게 사서 아주 비싸게 서구시장에 팔았다. 발트해와 북해 무역 상인 중심의 한자동맹(Hanseatic League)을 형성해 북유럽 70개 도시를 연결시키는 상행위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상인 은행가들이 성공적인 은행경영을 통해 산업자본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휴거은행(Fuggers' Bank)이다. 이 은행은 당시의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합스버그(Hapsburg) 통치자들은 이 은행에 은, 동, 탄광 개발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 은

행의 도움이 없이 메인쯔(Mainz)의 대주교가 세 교구를 다스릴 수 없었다. 메인쯔의 대주교 알브레흐트(Albrecht)—추기경이 됨—가 세 교구를 운영하면서 교황청에 상납하는 부담금이 많아서 휴거운행 진 빛이 많았다. 사실 면죄부(indulgence)를 판매하게 된 동기는 판매금의 절반을 이 빛을 갚는 데 쓰고, 또다른 절반은 성 베드로 성당 증축 공사를 위해 쓰려는 것이었다.

각종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 사람들이 더욱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도시로 떠나가는 도시화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도시중심의 도시신학(urban theology)이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어져 갔다. 루터는 비텐베르그(Wittenberg) 중심으로, 쾰른의 취리히(Zuerich) 중심으로, 칼빈은 제네바(Geneva)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발전시켰다. 경제적 도시화현상은 정치적으로도 중세의 중앙집권적 전체주의 체제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종교개혁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도시화현상과 맞물려서 진보하게 되었다.

독일이 민족주의가 서서히 발전하게 된 것처럼, 스위스도 상당히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 도시국가 형태의 정치체로 발전하게 되어,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의 로마교황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의 중심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다. 작은 주들의(cantons) 스위스 연맹(Swiss Confederation)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것은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의 통치아래 있으면서 독립적 연합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우리(Uri), 슈비쯔(Schwyz), 운터발덴(Unterwalden) 주들이 자체 방어를 위해 연합체를 형성하였고(1291), 2세기 동안 15개의 도시와 농촌 공동체들이 가입하게 되었으며, 1526년 제네바도 가입하게 되었다. 각 주들은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대표들을 연합체에 보내 국회(Diet)를 형성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신성로마제국에 예속되어 있으나, 그 관계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제네바의 민족주의적 정치풍토가 칼빈의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것이다. 처음에 칼빈은 제네바시민들로부터 도전을 받아 1538년 스트

라스버그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3년후 1541년 다시 제네바로 들어가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민족주의에 의해 네명의 최고정치지도자들(syndics)이 모두 칼빈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민족주의 때문이었고,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들의 가슴속에 민족주의를 불질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을 붙여왔던 것이다. 또한 칼빈도 민족주의의 분위기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고 제네바시의 사회적 성화운동까지 전개할 수 있었다.

Ⅲ. 인쇄술의 발전과 종교개혁

종교개혁 전야에 나타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nannes Gutenberg)의 인쇄술 발명(1454)은 종교개혁 사상을 삼시간에 유럽 전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메인쯔(Mainz)에 이 금속활자가 소개되어, 1456년 라틴어 성경책(Latin Bible)을 인쇄하였다. 1457년에는 '메인쯔 시편'(Mainz Psalter)을 인쇄하였는데, 첫 페이지에 출판사 이름, 출판사 위치, 출판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 태리에도 인쇄술이 소개되어 수비아코(Subiaco)와 베니스(Venis)에 인쇄소가 설립되었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에 William Caxton의 인쇄소가 1477년 설립되어 새로운 인문주의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²⁸ 런던(London)에도 1476년 인쇄소가 생기게 되었다. 1495년 베니스에 알두스 로마누스(Aldus Manutius Romanus)에 의해 이탤릭체(Italic style) 활자까지 인쇄하는 알다인 인쇄소(Aldine Press)가 생겼다.

인쇄술 덕분에 종교개혁의 선전내용이 빨리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읽을 수 있는 사람, 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텐베르그나

28. Harold J.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55), 68.

제네바에서 나오는 획기적인 새 아이디어들을 배울 수 있었다. 종교개혁가들의 설교들이 인쇄된 형태로 나타났을 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영국 상류층들은 이미 1575-1600년경에 루터사상에 대하여 대부분 알고 있었다. 한자동맹의 길을 통하여 케임브리지(Cambridge)에도 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루터가 그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영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95개조의 항의문을 학문적인 언어인 라틴어로-독일 민중들을 선동하려면 쉬운 독일어로 썼을 텐데-루터는 토론하기 위하여 썼다. 그런데, 자신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삽시간에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고 인쇄되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루터가 몇백명앞에서 설교한 것이 며칠이 못되어 수천개의 인쇄된 설교문으로 팔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가 설교한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To the Christian Nobility)이 4,000부나 인쇄되어 팔렸다. 또한 다시 빠른 시일안에 재판되어 보급되게 되었다.²⁹ 영국과 불란서의 상류층 계급에 개신교가 강하게 보급되어 가계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와 항구도시이기에 옥스포드보다 외국 책들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개신교신학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

인쇄술의 발전은 특히 종교개혁의 원초적인 자료인 성경과 초대교부들의 저서들의 신빙성있는 사본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쇄술의 발전으로 보다 정확한 편집들을 해낼 수 있었다. 15세기말과 16세기초에 인문주의 학자들은 유럽의 도서관들에서 초대교부들의 저서들을 샅샅히 뒤져서 편집하고 인쇄하였는데, 신학적 분석에 의하여 오류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본문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약성서의 믿을만한 편집을 구할 수 있었고 어거스틴의 저서들을 구할 수 있었다. 어거스틴의 저서 11권이 1490-1506년의 편집을 거쳐 바젤의 아메르바하(Amerbach) 출판사에서 인문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출판되었다. 후에 에라스무스가 어거스틴 전집을 다시 편집 출판하

29. Joseph Lortz, *The Reformation in Germany*, vol.1, trans. Ronald Walls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8), 45.

였다(바젤의 Johann Froben 출판사에서 1528-9년에).

인쇄술은 개인적 경건과 가정적 경건생활을 돕는 많은 책들을 출판하게 하였다. 단순한 복음적 경건을 훈련시킬 수 있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시편의 번역과 해설, 특히 51편의 번역과 해설 등이 인쇄되었다. 가정용 교리문답서가 인쇄되기도 하였다. 루터의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 등이 인쇄됨으로써 종교개혁 진리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평신도들에게 교육시키기에 좋았다.

그러므로 인쇄된 종교개혁의 선전내용이 없이는 종교개혁운동이 성장할 수 없었다. 인쇄술은 종교개혁의 촉매작용을 하였고, 선결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쇄술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³⁰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1517년전 60년동안 인쇄술이 발전되어 성경, 교회예배서들, 교과서들, 그리고 사전류들을 출판하여 왔었는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선전매체 노릇을 하게 된 셈이다. 종교개혁가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주장을 퍼트릴 수 있었다.³¹ 인쇄술은 신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나누어 주는데 아주 막대한 공헌을 하였다.

IV. 중세 후기 종교적 상황과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전의 후기 중세의 교회적 상황은 교회의 행정적, 도덕적, 법적 개혁의 소리가 높았다. 교회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더욱 높다는 주장(Conciliar Movement)이 일어나게 되었다. 교황청의 아비뇽(Avignon) 포로(1378-1415) 이후 콘스탄스 회의(Council of

30. Euan Cameron, *The European Reform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1) 6.

31. Cameron, 6.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관계는 L.Febvre and H.J. Martin, *The Coming of the Book: The Impact of Printing 1450-1800*, trans. D. Gerard (London, 1976)에서 자세히 취급하고 있다.

Constance, 1414-18)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콘스탄스와 바젤 회의(Council of Constance and Basel, 1431-49)에서 다시 교회총회(General Council)는 교황보다 더욱 높은 권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황이 세속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세속 권세 위에 군림하는 것에 대한 개혁의 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성서해석의 권위가 교황에게만 주어진다든가 교황의 절대무오설(infallibility)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게 되었다. 추기경들과 대주교들을 많이 임명하여 값비싼 예복과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치부하였다. 이렇게 몰락화한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 증축공사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음에도 가난한 교인들의 피를 짜내어 성당 증축공사를 하는데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았다.

중세교회는 선행의인화 사상에 의해 많은 선행—성지순례, 금식, 고행, 독신생활 등—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였다. 심지어는 성자들의 유품을 모으고 귀를 모으는 것, 성녀의 젖꼭지를 모으는 것, 성자와 성녀의 뼈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심으로 구원받는다든가 착각과 미신에 빠지기도 하였다. 가장 극단적인 선행추구는 면죄부 판매였다. 면죄부 설교자들이 면죄부 현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부모들의 영혼들과 조부모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미신을 설교하였다. 그래서 모여진 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증축 공사와 은행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루터는 공격하기를 교황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도 증축공사를 하고도 남는데 가난한 양들의 피를 짜내는 현금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중세수도원의 포도주와 농산물 수입으로 성직자들이 너무 부요하여 영성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몰락화되어 가고 이웃의 가난과 고난에 무관심하는 것은 중세의 암흑기의 타락상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성직자들의 도덕적 개혁의 소리가 또한 높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성직자들이 부요하였고,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사생아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중세의 수도원은 농사와 포도 재배를 통해 재산을 비축하는 몰락화

의 현상이 일어났다. 교회의 영성운동에 대한 강한 요청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성지순례와 금식과 면죄부 판매 행위가 구원을 얻는 행위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였다. 기독교신앙의 생동감과 신선감을 상실한 것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생동감과 신선감의 회복에 대한 강한 요청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단순성과 열심과 사랑의 공동 분배운동을 사모하였다. 또한 초대교회 500년 교부시대 신학에로의 회복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평신도들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였다. 평신도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하였다. “교회란 무엇이였는가?” (What the church was?)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What it might be?)를 묻게 되었다.

그러나 13세기 스콜라주의(Scholasticism) 등장 이후 기독교 교리와 윤리의 점진적인 부패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기에, 스콜라주의 신학이 그러한 평신도들의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중세의 신학을 종합하고 교회의 정책을 결정했던 스콜라주의가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갈등과 다양한 입장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인문주의 플라톤 학파(the Platonic Academy)에 의해 학문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이상 아리스토텔(Aristotle) 철학에 기초한 스콜라주의는 후기 중세인의 지성을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

15세기 후반의 스콜라주의의 두가지 중요한 경향은 ‘via moderna’ (by modernity, modern way)와 ‘via antiqua’ (by antiquity, ancient way)였다. ‘via moderna’는 현대적 방법으로 어거스틴사상에 기초하여 스콜라주의를 해석하는 학파로써 에르프르트 대학교(University of Erfurt)와 비엔나 대학교(University of Vienna)에서 지배적인 경향이었는데, 윌리엄 오캄(William of Ockham, 1349년 사망)의 교리를 추종하는 것이다. 윌리엄 오캄의 교리는 신학

적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신앙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³² 그리고 신앙의인화를 위해서는 작은 전제조건(minimum precondition)으로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시말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에 먼저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겸손의 신학(theology of humility)이다. 오캄의 추종자들은 리미니의 그레고리(Gregory of Rimini, 1358년 사망), 피에레 아빌리(Pierre d'Avilly, 1420년 사망), 진 게르손(Jean Gerson, 1429년 사망),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 1495년 사망) 등이었다. 가브리엘 비엘은 루터가 에르프르트에서 강하게 영향받은 학자로 그의 미사(mass) 해설이 루터에게 특히 영향을 주었다.³³

'via antiqua'는 고전적 방법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74년 사망)와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1308년 사망)의 고전적 스콜라주의를 고수하는 학파다. 이들은 'via moderna'에 도전하는 학파로써 양자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1473년 이후에 루베인(Louvain)과 파리(Paris)에서 발전하였는데, 콜로냐 대학교(University of Cologne)와 라이프찌히 대학교(University of Leipzig) 등 남서 독일에 강한 영향을 미치었다. 이성과 자연신학을 중요시 여기고 성서와 다른 초대교회 자료들의 연구에 관심가졌다. 이중에 카제탄(Cajetan)은 루터와 신학적인 논적으로써 회개와 개혁을 설교함으로 카톨릭 종교개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³⁴

후기 중세를 지배한 신학인 스콜라주의의 두 기둥, 곧 아리스토틀(Aristotle)적 요소와 펠라기우스(Pelagius)적 요소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길을 만들어 주었고, 루터의 신학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via antiqua'나 'via moderna'나 모두 이 두 요소를 그 사상적 뿌리로 갖고 있었기에 루터는 이러한 스콜라주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

33. Grimm, 61.

34. Grimm, 61.

(theologia gloriae)이라고 비판하였다. 다시말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찾지않고 아리스토텔적 이성의 사변에 의해 찾으려 하고 펠라기우스적 자유의지의 선행(good works)으로 찾으려고 한다고 공격하였다. 하나님 인식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그의 신학은 '십자가신학'(theologia crucis)이라고 변증하였다.³⁵ 그는 "우리의 신학은 오직 십자가 뿐이다"(crux est sola theologia nostrae)라고 강조한다.³⁶

스콜라주의에 의해 부패할대로 부패하고, 어두울대로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그는 후기 중세의 내재적 크리스찬 민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내는 십자가신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 십자가신학을 발견한 경험을 루터 자신은 '탐의 경험'(Tumerlebnis)이라고 부른다.³⁷ 십자가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용서의 은총을 믿기만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하심을 수동적으로 낚선 손님 같은 의(aliena iustitia Dei)를 옷입게 된다는 것을 롬 1:17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³⁸ 그래서 전에는 가장 미워하였던 롬 1:17이 이제는 가장 사랑하게 되었으며, 패러다이스(paradise)의 문이 되었다고 표현한다.³⁹ 다시말해서, 중세 스콜라주의의 능동적·수평적 영성(impartation)이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루터는 수동적·수직적 영성(imputation)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35. 1518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밝힌다. Martin Luther, *Dr.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5) 1, 354, 17-21.

이하 WA로 표기함.

36. WA, 1, 176, 32-33.

37. McGrath, 73.

38. Martin Luther, *Luther's Work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87), vol.34, 336-37. 이하 LW로 표기함.

39. LW, 336.

나오는 말

종교개혁은 중세의 연장이나? 현대의 시작이나?는 논쟁에서 베버(Marx Weber)나 트뢰츨취(Ernst Troeltch)나 홀(Karl Hall)이 해석한 것처럼 종교개혁은 중세의 연장이 아니라 현대사의 시작을 열게 되었다. 그 이유는 현대사의 특징인 개인주의를 인문주의의 통로를 통해 종교개혁은 발전시켰으며, 현대사의 또 하나의 특징인 자본주의를 민족주의라는 채널을 통해 봉건주의를 몰락시키면서 종교개혁은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인문주의, 민족주의, 인쇄술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교회를 개혁시켰을 뿐 아니라 역사를 변혁시킨 운동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문화를 끝장내고 현대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문화변혁자(transformer of culture) 역할을 하였다. 리차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지적한대로 종교개혁은 역사와 문화의 변혁운동(transformation)이었다.